

# 카르네아데스의 ‘개연적인 감각표상’과 ‘행위가능성’의 문제

-스토아 학파의 ‘파악표상’과 ‘현자’ 개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박규철\*

**주제분류** 고대철학, 철학사

**주요어** 카르네아데스, 신-아카데미, 크리스포스, 개연적인 감각표상, 파악표상, 현자, 억견

## 요약문

신-아카데미 학파의 창시자인 카르네아데스는 고대 아카데미 회의주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아르케실라오스로부터 시작된 아카데미 회의주의를 계승·발전시켰으며, “개연적인 감각표상(pithane phantasia)”을 중심으로 행위가능성의 문제를 천착하였다. 그 결과,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지평은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카르네아데스의 회의주의는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카르네아데스는 진리의 기준으로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제시한다. 이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크리스포스의 독단적인 동의 개념에 내포된 인식론적인 교만을 비판한다. 나아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로부터도 참되지 않은 표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스토아 학파의 진리 기준인 파악표상이 가진 한계점을 성공적으로 노출시킨다.

둘째,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의 “행위불가(apraxia)” 문제제기에 맞서, 행위가능성을 천착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종일관 “판단유보(epochē)”의 원리를 고수하였던 아르케실라오스와 달리, 그는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지책(苦肉之策)에서 판단유보의 원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온건한 회의주의자’ 또는 ‘완화된 회의주의자’로 평가된다.

\* 국민대학교

셋째, 카르네아데스는 “현자(ho sophos)”도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에 따라 자신의 “역견(doxa)”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그가 말하는 역견이란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역견이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역견이었다. 이것이 바로 카르네아데스를 스토아 학파와 구분 짓게 하는 차이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카르네아데스는 개연적인 감각표상 개념을 통하여 회의주의자가 어떻게 동시에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철학자였다. 물론, 섹스투스를 비롯한 피론주의 회의주의자들이 그의 철학을 강하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카데미 회의주의를 완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로 인해, 아카데미 회의주의는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학문이라는 것은 극히 유익하고 위대한 소질이다.  
이것을 경멸하는 자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몽테뉴 <수상록> II, X II-

## 1. 머리말

고대철학사에서 아카데미 학파와 스토아 학파 간의 철학적 논전(論戰)은 수 백 년 간 지속된 오랜 논전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그 논전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이었던 논쟁점을 형성하였던 것은 ‘아프락시아(apraxia, 행위불가)’의 문제였다. 스토아 학파는 이 문제가 아카데미 학파의 아킬레스건(Achilles 踵)이었음을 잘 간파하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아카데미 학파 역시, 이 문제만 잘 방어하면 스토아 학파에 대한 철학적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특히, 스토아 학파와의 논쟁에서 선봉에 서 있었던 아카데미의 학장 카르네아데스(Carneades, BC214-129/8)는 자신의 “개연적인 감각표상(pithane phantasia, 『독단주의자들에 반대하여』(이하 *M*으로 약함). 7.166)”이란 개념이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였다.<sup>1)</sup>

주지하다시피, 카르네아데스는 아르케실라오스의 회의주의를 계승·발전시켰다(『아카데미카』(이하 *Ac.*로 약함). 2.16).<sup>2)</sup> 그는 키레네 출신이었으며, 신-아카데미 학파(the New Academics)의 창시자이기도 하였다. 아르케실라오스와 함께, 그는 플라톤의 아카데미를 고대 회의주의 철학의 성지(聖地)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든 이러한 전통은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특히,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가 제기하는 “무위도식(無爲徒食)이라는 문제”(L. Corti 2018), 즉 “회의주의자가 판단을 보류한다

- 
- 1) 고대 회의주의 전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박규철(2013b)의 논문과 카차 포그트(2018)의 『고대회의주의』를 참고하라.
  - 2) 아르케실라오스에 관해서는 박규철(2013a)의 논문과 오유석(2005)의 논문을 참조하라.

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L. Corti 2018)는 집요한 반론에 맞서,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고유한 입장, 즉 외부대상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입장, 다시 말해서 회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행위가 가능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입장을 옹호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카르네아데스가 그의 철학 전면에 내세우는 개연적인 감각표상이란 개념은 스토아 학파가 진리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과악표상(kataleptike phantasia,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하 *DL*로 약함). 7.46)”이란 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다. 그에 의하면, 표상들은 그 질에 따라 개연적인 것과 비개연적인 것으로 나뉘고, 또한 개연적인 것은 그 정도에 따라 개연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나뉘는데, 이것들 중에서 유의미한 것은 개연성이 높은 표상인데, 그는 그 개념을 개연적인 감각표상이라 명명한다(*Ac.* 2.99-104, *M.* 7.166-75). 그런데, 행위가능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이 개념에 근거해서 행위 한다면, 스토아 학파 식(式)의 독단적인 인식이론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행위가능성의 문제는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스토아 학파의 인식론에 대한 아카데미 학파의 공격이 무조건 모든 것은 과악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과악불가능하다(akatalepton)”는 명제는 곧바로 모든 것은 “불명확하다(adelon)”라는 명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키케로에 의하면, 카르네아데스는 “불명확한(adelon) 감각표상들”과 “과악불가능한(akatalepton) 감각표상들”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Ac.* 2.32).<sup>4)</sup> 즉 카르네아데스는 어

3) 카르네아데스는 ‘그렇듯함(eulogon, *M.* 7.158)’ 개념으로 행위가능성의 문제를 모색하였던 아르케실라오스와 달리, 개연적인 감각표상 개념에 근거하여 아프리카시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4) 감각표상(phantasia)에 대한 카르네아데스의 설명과 구분은 *Ac.* 2.99-104와 *M.*

면 감각표상들은 다른 감각표상들에 비해 우리에게 보다 선명하게 다가 오며, 우리는 그런 감각표상들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는 실제로는 감각표상들의 진실성을 보장해 줄 판명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각표상들을 설득적이거나 “개연적인 것(to pithanon, 『피론주의 개요』(이하 PH로 약함). 1.231)”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 자신의 회의주의 철학을 전개하였다.<sup>5)</sup>

역사적으로 볼 때,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의 집요한 물음, 즉 “판단을 유보하는 회의주의자가 어떻게 동시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적합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이러한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제시하나, 오히려 이 개념으로 인하여 섉스투스 엠포리쿠스(Sextus Empiricus, 160-210, 이하 섉스투스로 약함)의 강한 비난, 즉 회의주의를 포기한 채 지식을 개연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강한 비난에 휩싸이게 된다.

카르네아데스나 클레이토마코스를 추종하는 자들은 스스로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면서 이런 것에 따른다고 말하며, 또 어떤 감각표상이 개연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는 아무런 집착없이 단순히 어떤 것을 (수동적으로) 용인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카데미아

7.166-75을 참고하라.

- 5) 카르네아데스는 ‘개연적인 것(to pithanon)’이란 개념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그들(아카데미)은 서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표상을 사용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상황 하에서 같은 표상을 따르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문제를 탐구할 때는 우리는 하나의 증거만을 구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몇 개의 증거를 두루 참고해서 증거 각각을 비교 조사한다.”(M. 7.185) 즉 그는 관련되는 감각표상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그것들 사이에 모순이 없고 정합적이면 그것을 따를 것을 권한다. “아카데미 학파들도 감각표상의 정합성을 통해 참 거짓을 판단한다. 또한 서로 일치하는 감각표상들 중 어떤 것도 그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는 이 감각이 참이라고 말한다.”(M. 7.179)

철학자들과 다르다. 더구나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아카데미아 학파와 다르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아 학파의 이론에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연성을 채택하는 반면에 우리는 법률과 관습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에 따라서, 독단적 믿음 없이 삶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PH. 1.230-1)<sup>6)</sup>

하지만, 섉스투스의 이런 가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카르네아데스가 고대 회의주의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통해, 독단적(獨斷的)인 지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 개연적인 지식에 근거한 인간 행위의 실천(praxis) 가능성을 천착하였으며, 회의주의 안에서 온건하고 현실적인 철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완화된 회의주의자’로서 카르네아데스가 자신의 개연적인 감각표상에 근거해서 어떻게 행위가능성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그것이 고대 회의주의 역사에서 어떤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카르네아데스를 가리켜 회의주의를 포기한 채 지식을 개연적인 것으로 만든 철학자라고 혹평하였던 섉스투스 엠피리쿠스의 부정적인 평가에 맞서, 오히려 카르네아데스가 지식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온건한 철학자’ 또는 ‘현실적인 철학자’임을 논증할 것이다.<sup>7)</sup> 이를 위해 필자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섉스투스 엠피리쿠스의 『피론주의 개요』와 『독단주의자들에 반대하여』, 그리고 키케로의 『아카데미카』 등의 문헌에 대한

6) PH.에 대한 번역은 오유석(2008)의 것을 따른다.

7) 카르네아데스에 대한 섉스투스의 비판은 PH. 1.1-4와 1.226에 등장한다. “아카데미 철학자들은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우리와 명백히 다르다. 즉 아카데미 철학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대상이 좋거나 또는 나쁘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상이 이와 반대되는 대상보다는 실제로 좋을 개연성이 크다(pithanon)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나쁜 것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명한다.”(PH. 1.226)

비교 연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는 스토아 학파의 ‘파악인상(kataleptikē phantasia)’과 ‘현자(ho sophos)’ 개념에 대한 비판적인 조망을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회의주의자도 개연적인 감각표상에 근거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 3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진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크리시포스의 ‘파악표상’인가, 아니면 카르네아데스의 ‘개연적인 감각표상’인가? (2) 카르네아데스와 아르케실라오스는 연속하는가, 아니면 불연속하는가? 그리고 개연적인 감각표상 개념은 판단유보(epochē)의 원리를 제한하는가, 아니면 제한하지 않는가? (3) 개연적인 감각표상 개념은 행위불가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자는 역견을 가지는가, 아니면 가지지 않는가?

## 2. 진리의 기준은 크리시포스의 ‘파악표상’인가, 아니면 카르네아데스의 ‘개연적인 감각표상’인가?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의 대변인인 크리시포스(Chrysippus, BC279-206)의 파악표상<sup>8)</sup> 개념을 비판한다(M. 7.402-410).<sup>9)</sup> 특히, 그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로부터도 참되지 않은 표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크리시포스가 강조하는 파악표상의 한계점을 성공적으로 노출시킨다(M. 7.244-5).<sup>10)</sup>

8) Ac. 2.77에는 파악표상 개념의 특징이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1) 파악표상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2) 파악표상은 실재하는 그대로 각인되고, 흔적을 남기며, 형성되어진다. (3) 파악표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발생하지 않는다(M. 7.252에도 등장). 그리고 이러한 파악표상 개념은 현자 개념과 연관된다(Ac. 1.42에도 등장).

9) 스토아 학파의 진리 개념을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박승권(2014)과 오유석(2009, 2010)의 것을 참고하라.

10) 스토아 학파의 진리기준은 파악표상이다. 그들이 보기에, 파악표상이 존재하지

주지하다시피, 제논(Zenon of Kition, BC 335-263)은 진리의 기준으로 ‘파악’개념을 제시한다.<sup>11)</sup> 하지만, 아르케실라오스는 파악 개념이 지닌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다. 섉스투스에 의하면, 그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가능하다(*M.* 7.150-56). 첫째, “스토아 학파의 진리기준은 파악(*katalēpsis*)이다.” 둘째, “파악의 존재는 파악표상(*kataleptikē phantasia*)의 존재에 의존한다.” 셋째, “파악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넷째, “스토아 학파의 진리 기준(*kritērion*)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르케실라오스의 비판에 맞서, 제논의 후계자이자 스토아 학파의 리더였던 크리시포스는 위의 명제들 중 “파악표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완강하게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파악표상은 진리의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섉스투스도 “그들[스토아 학파들]은 진리의 기준(*kritērion tēs alētheias*)은 파악표상, 즉 실재로부터 나오는 표상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DL.* 7.54).<sup>12)</sup>

사실, 크리시포스는 항상 제논의 계승자임을 자처하였으나, 파악표상 개념을 상정할 때는 제논보다 더 강한 실재론자의 면모를 보였다. 사실,

---

않는다면, 모든 것은 불명확하다. 물론, 이 점에 있어서는 카르네아데스도 스토아 학파와 생각의 궤를 같이 한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와 달리, 그는 파악표상이 부재하는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인 감각표상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와 갈라진다.

- 11) 키케로에 의하면, 제논은 파악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표상’은 손가락을 다 펼쳐 평평하게 내미는” 것과 같으며, ‘동의’는 “손가락을 약간 굽히는” 것과 같으며, ‘파악’은 “그 주먹을 꼭 쥐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Ac.* 2.145).
- 12)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크리시포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상 중에서 어떤 것은 ‘파악할 수 있는 것(*kataleptiken*)’이고, 어떤 것은 ‘파악할 수 없는 것(*akatalepton*)’이다. 직접 지각에서 온 것을 전달하는 인상은 사물들의 기준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있는 것(*hyparkon*)에서 생겨나며 실제로 있는 것 바로 그대로(*kat’ auto to hyparchon*) 각인되고(*enaposphragizein*) 날인되는(*enapomassein*) 것이다. 반면에, 직접 지각에서 오지 않은 것을 전달하는(*akatalēptos*) 표상은 실제로 있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로 있는 것에서 오더라도 실제로 있는 것 바로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그것은 분명하지도(*tranēs*) 않고 확연하지도(*ektypos*) 않다.”(*DL.* 7.46)

그 이전에 제논이 강조하였던 파악이란 개념은 단순한 의견과 참된 지식을 구분하는 인식론적 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크리스포스가 강조하는 파악표상 개념은 실제와 실제 아닌 것을 식별(識別)하는 존재론적 척도로서 작용하였던 것이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카르네아데스가 “스토아 학파의 책, 특히 크리스포스의 저서들을 열심히 읽고, 그것들에 대해 적절하게 반론을 펼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말끝마다 ‘만일 크리스포스가 없었더라면 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였다.”(DL. 4.62)라는 일화(逸話)를 소개해주고 있다.<sup>13)</sup>

키케로에 의하면, 크리스포스에 대한 카르네아데스의 비판은 다음 5가지 명제로 요약가능하다(Ac. 2.40).<sup>14)</sup> 첫째, “어떤 표상들은 참된 것이고, 어떤 표상들은 거짓된 것이다.” 둘째, “거짓된 표상들은 파악불가능하다.” 셋째, “모든 참된 표상은 그와 똑같은 종류의 거짓된 표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넷째, “두 표상이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파악가능하지만 어떤 것들은 파악불가능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다섯째, “파악가능한 어떠한 표상도 없다.” 그런데, 이 논증에서 카르네아데스와 크리스포스가 충돌하는 지점은 세 번째 명제의 수용 여부에 있다. 스토아 철학자인 크리스포스는 파악표상이 실제들로부터만 생겨나고, 실제 아닌 것으로부터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그는 세 번째 명제를 거부한다. 하지만, 회

13)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마그네시아 사람인 디오클레스의 다음 말도 소개해 준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인상과 지각에 대한 논의를 맨 앞에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물의 진리를 인식하는 기준이 일반적으로 인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다른 논의들보다 앞서서 승인(synkatathesis)에 관한 논의와 파악과 생각(noēsis)에 대한 논의도 인상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왜냐하면 인상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표현할 줄 아는 사고(dianoia)가 인상에 의해 겪은 것을 말로 꺼내놓기 때문이다.”(DL. 7.49)

14) 키케로와 아카데미 회의주의 전반에 대한 이해는 김용민의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김용민, “키케로와 헬레니즘 철학: 『아카데미 회의주의에 대하여』에 나타난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제18집,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의주의 철학자인 카르네아데스는 파악표상이 실재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맞지만, 실재 아닌 것으로부터도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명제를 수용한다. “그[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에 동의할 것이나, ‘그러한 것[파악표상]이 실재 아닌 것으로부터 생기지 않는다’라는 구절에는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M. 7.402-5) 진리론과 연관해서 볼 때, 파악표상과 실재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진리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의 입장에서 서 있는 크리스포스는 “파악표상은 실재 아닌 것으로부터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인정하는데 반해서, 진리대응설의 반대 입장에서 서 있는 카르네아데스는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카르네아데스와 크리스포스는 파악인상과 실재와의 연관성 문제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실재로부터는 거짓된 표상이 나올 수 없다는 크리스포스의 주장보다는, 실재로부터도 거짓된 표상이 나올 수 있다는 카르네아데스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그런데 필자의 이러한 판단은 M. 에 나타난 섉스투스의 분석에 기대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카르네아데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사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M. 7.244-5.).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중의 한 명인 에우리피데스(Euripides)의 작품 『오레스테스』에는 아버지 아가멤논(Agamemnon)을 죽인 살인자인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Clytaimnestra)와 그녀의 정부(情夫) 아이기스토스(Aegisthus)를 살해한 주인공 오레스테스(Orestes)가 등장한다. 그는 부친살해의 원수들을 살해하지만, 곧이어 여인들의 보호자였던 복수의 여신들(Erinyes)의 추격을 받고,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정신착란에 빠지고 만다. 급기야는 자기를 간호해주던 누이 엘렉트라(Electra)를 보고선 헛소리마저 하게 된다. “놓으세요. 당신은 복수의 여신들 중 한 명으로 나를 타르타로스에 던지려고 내 허리를 잡는 거예요.”(264-5행) 그런데, 이 장면은 참된 실재로부터도 거짓된 표상이 나올 수 있다는 카르네아데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래서 섹스투스스는“참이면서 거짓인 감각표상은 오레스테스가 녀이 나가 엘렉트라(Electra)를 잘못 알아보게 될 때 가지게 되는 표상이다. 오레스테스가 실재하는 것에 관한 잘못된 표상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그의 표상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 때에도 엘렉트라라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M. 7.244-5.)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레스테스는 실존하는 엘렉트라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녀를 복수의 여신들로 표상하고 있다. 하지만, 엘렉트라에 대한 오레스테스의 표상은 거짓이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표상이 인식주체에 반드시 올바르게 전달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방증(傍證)하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sup>15)</sup>

정리하자면, 카르네아데스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로부터도 참되지 않은 표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스토아 학파의 진리 기준인 파악표상이 가진 한계점을 성공적으로 노출시킨다.

### 3. 카르네아데스와 아르케실라오스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개연적인 감각표상 개념은 판단유보의 영역을 제한하는가, 아니면 제한하지 않는가?

스토아 학파의 인식론에 대한 논박 과정에서, 과연 카르네아데스가 견지한 철학적 입장은 무엇이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는 다음 2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에 대한

15) M. 7.408-10과 Ac. 2.54-58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사례들로 ‘거의 똑같은 정도로 비슷한 쌍둥이’와 ‘서로 구별되지 않는 두 개의 달걀’이 등장한다. 쌍둥이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쌍둥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사실 A와 B 중 누가 형(언니)이고 누가 동생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비슷한 달걀 C와 D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 중 어떤 것이 C이고 어떤 것이 D인지를 구분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비판 과정에서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진지하게 전제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변증법적 전략 하에서, 즉 스토아 학파를 논박하기 위한 목적 하에서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Ac.* 2.78). 만약 전자의 입장이 강조된다면, 카르네아데스는 아르케실라오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개연적 지식을 옹호하는 온건한 회의주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후자의 입장이 강조된다면 카르네아데스는 아르케실라오스의 회의주의와 연속하는 강경한 회의주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판단유보(*epoche*)’다. 만약 카르네아데스가 판단유보의 원리에 충실하다면, 그는 아르케실라오스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르케실라오스와 다른 새로운 회의주의를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철학사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카르네아데스의 제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쟁거리(*heated controversy*)’가 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클리토마코스(*Clitomachus*, BC127-110년 사이의 아카데미 학장)와 필론(*Philo of Larissa*, BC159-84)·메트로도로스(*Metrodorus of Stratonicea*, BC 145-70)가 있다.<sup>16)</sup> 먼저, 클리토마코스는 카르네아데스를 아르케실라오스의 판단유보의 원리를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 즉 카르네아데스를 아르케실라오스와 동일한 ‘강경한 회의주의자’로 해석한다. 이에 반해서, 그와 대립하였던 필론·메트로도로스는 카르네아데스를 아르케실라오스의 판단유보의 원리를 제한하는 사람, 즉 그를 아르케실라오스와 다른 ‘완화된 회의주의자’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클리토마코스는 스토아 학파와의 논전 중에 카르네아데스가 강조하는 개연적인 감각표상이나 의견(*doxa*)을 긍정하는 그의 모습 등은 모두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단지 스토아 학파를 논파하기 위한 변증법적 전략 하에서 형성된 모습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Ac.* 2.59,99,108,67,78,112,6,16,24,78.

서, 필론·메트로도로스는 스토아 학파와의 논전 중에 카르네아데스가 하는 말이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모두 참되며, 그것들은 모두 그의 속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카르네아데스와 아르케실라오스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면, 클리토마코스의 입장이 더 주목받을 것이고, 카르네아데스와 아르케실라오스의 불연속성이 강조된다면, 필론·메트로도로스의 입장이 더 주목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의주의와 연관된 우리의 질문이 제기된다. 즉, 과연 어떤 감각표상들을 개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는 판단유보(epochē)라는 회의주의의 큰 원칙을 위배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H. 서스러드(Harald Thorsrud 2010)에 의하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2가지 길이 있다. 첫째, 필론·메트로도로스의 해석을 따라, 카르네아데스는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을 수용하고 또한 그것을 강조함으로써, 판단유보의 영역을 크게 제한했다고 보는 길이 있다. 둘째, 클리토마코스의 해석을 따라, 비록 카르네아데스가 논의의 과정에서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논쟁의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차용된 전제일 뿐 그가 참된 것으로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카르네아데스가 판단유보의 원리를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고 보는 길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2가지 길 중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할까?

키케로는 이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에 의하면, 카르네아데스는 '동의(assent)'라는 개념의 의미를 2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즉 현자가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현자는 그것이 회의주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일 때는 동의하나,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즉 회의주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닐 때는, 가령 독단적인 표상이라든가, 아니면 오류로 가득 찬 표상 같은 것일 때는 여전히 자신의 동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Thorsrud 2010; Obdrzalek 2006 참고).<sup>17)</sup>

17) 카르네아데스는 오류가능주의자(a fallibilist)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그를 오류가능주의자로 단정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적어도 현실의 구체적이고도

현자는 다음 2가지 의미에서 동의를 유보한다. 하나는 현자는 어떠한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현자가 어떤 것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결과 어떠한 것에도 “예” 또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을 감안할 때, 현자는 첫 번째 의미에서는 동의에 대한 유보를 수용하며, 그 결과 그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으나, 두 번째 의미에서는 자신의 동의를 유지하며, 현존하거나 불충분한 것에서 설득력 있는 것을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된다. (Ac. 2. 104)

이처럼, 키케로는 부정적 의미의 동의 개념과 긍정적 의미의 동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아르케실라오스의 회의주의와 연속(連屬)하면서도 불연속(不連續)하는 카르네아데스 철학의 특이점, 즉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온건하고 잠정적인 형태의 신념이나 의견을 확보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판단유보의 영역을 축소시키나, 다른 한 편으로는 행위불가(apraxia)라는 반(反)-아카데미 진영의 반론에 맞서 행위가능성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카르네아데스 철학의 특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8)</sup>

그런데, 인식의 과정에 있어서 개연적인 감각표상에 주어진 감각표상을 참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감각표상에 동의하는 것은 가능할까?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감각표상이 개연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것들이 예측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회의주의적으로 어떤 감각표상을 개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감각표상에 설득력이 존재한다는 말

---

실제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가 오류가능주의자적 경향을 보이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H. 서스러드(Thorsrud 2010)의 글과 S. Obdrzalek (2006)의 글을 참조하라.

- 18) 카르네아데스가 말하는 동의에서 독단적 동의나 무분별한 오류 같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된다. 주목받는 것은 감각표상들 중에서 설득력 있는 것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태도와 같은 것이다.

이며, 그 감각표상이 설득력이 있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감각표상에 어느 정도의 진리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진리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은 채, 단지 주어진 감각표상을 개연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어떤 대상의 진리성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단순히 그것을 즐기려는 차원에서 어떤 가설을 제기하거나 어떤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허튼 소리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마룻바닥에 파리를 틀고 있는 뱀같이 보이는 물체를 보고선 막대기로 그것을 쳤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뱀처럼 보이는 그것이 진짜 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친 것이지, 결코 막대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M. 7.187; PH. 1.227). 이처럼, 주어진 감각표상을 개연적인 감각표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과 같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가설을 세운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최소한 유의미하거나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어느 누구도 무의미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나 가설을 진지하게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즉석식복권을 사서 일정 금액 이상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만약 내가 돈이 나올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복권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돈내기를 하자고 했을 때, 나는 그 어떠한 돈내기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그것을 믿거나 그것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내가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믿거나 그것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건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돈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주마 대회에서 ‘당대불패’<sup>19)</sup>라는 말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해보자. 만

약 내가 이러한 예상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말에게 돈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동의하는 감각표상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유의미하거나 실현 가능한 가설이나 개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Thorsrud 2010)

정리하자면, 필자는 필론·메트로도로스의 견해를 따라, 판단유보의 원리를 제한해서라도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수용하고자 하였던 카르네아데스를 온건한 회의주의자 내지는 완화된 회의주의자로 해석한다. 독단의 높과 허무의 높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면서 행위가능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던 카르네아데스에게 있어 개연적인 감각표상에 동의한다는 것은 행위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장치였던 것이다.

#### 4. 개연적인 감각표상 개념은 행위불가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카르네아데스는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을 수용하고 억견(doxa)들을 허용함으로써, 회의주의자들이 인정하는 판단유보의 원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다. 그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판단유보의 원리를 일부 제한하였던 이유는, 아카데미 학파 입장에서 행위불가 논쟁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그것은 교육지책(苦肉之策)이었으나, 스토아 학파에 대한 반격의 카드로는 충분하였다.<sup>20)</sup>

---

19) ‘당대불패’는 한국의 경주마이다. 2009년 9월 데뷔해 2013년 11월 10일 마지막 경주를 치르기까지 총 32전 19승을 기록, 승률 59.4%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통령배(GI) 3연패’라는 업적도 가지고 있다.

20) 카르네아데스와 피론주의자들에 대한 비교연구로는 황설중(2016, 2018)의 논문들을 참고하라

사실, 카르네아데스가 강조하였던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삶에 관한 것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짜리를 들고 있는 물체가 밧줄인지 뱀인지”(M. 7.187), “항해를 떠나야 할 지 말아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 씨앗을 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Ac. 2.100,109) 등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구체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들이다. 예를 들어, 바다를 항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나는 내가 타고 갈 배가 안전하게 운행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하다. 만약 내가 항해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나는 항해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위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처럼, 카르네아데스는 온건하고 개연적인 신념을 수용함으로써, 행위불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물론, 스토아 학파도 아카데미 학파의 비판에 맞서 “현자(ho sophos)” 개념을 도입한다. 섹스투스스는 스토아 학파의 인식론을 언급하면서 “열등한 사람은 무지하며, 오직 현자만이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는다.”(M 7.432)라고 전해준다. 스토아 학파에 의하면, 현자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존재다. 즉 인식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완전한 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비-파악표상들로부터 ‘파악표상(kataleptike phantssia, DL. 7.46)’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 보통사람들이 확실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자는 신적 인식, 즉 완전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이다.<sup>21)</sup>

그런데, 과연 파악표상이 아닌 것으로부터 파악표상을 구분하는 것이 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했을 때, 그런 현자가 과연 우리 현실세계에 존재할 수 있을까? 백 번 천 번 양보하여, 그런 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

21) 현자 개념은 스토아 인식론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한다. 그러기에 카르네아데스는 현자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스토아 학파에 대한 비판을 마무리한다.

고 한 번 가정해보자. 과연, 그런 현자가 파악표상과 비(非)-파악표상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 인식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22) 이에, 카르네아데스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 왜냐하면, 현자는 비-파악표상으로부터 파악표상을 구분함으로써 현자로서의 자기 존재성을 획득하는데, 그러한 현자의 존재성을 검증하는 존재 역시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적(矛盾的)이다. 그러기에,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의 현자 개념은 그들의 인식론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라기보다는, 그들의 인식론적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개념적 장치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행위가능성의 문제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현자도 억견(doxa)을 가진다.”라는 도발적인 주장을 제기한다.23) 이는 스토아 학파의 행위불가 논증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임과 동시에, 새로운 인식론에 근거한 실천철학의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먼저, 그는 현자라는 존재는 일단 인정한다. 보통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토아 학파를 따라, 현자가 완벽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데 긍정한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와 달리, 그는 그런 현자도 인식과정에서는 보통 사람들과 동일한 인식의 상태, 즉 억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분명 현자를 완벽

22)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의 파악표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의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준다. 즉 스토아적인 현자는 명석 판명한 파악적 감각표상을 획득하고자 노력하나, 실상은 그가 믿고 의지할만한 파악표상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기에, 파악표상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진리는 아니더라도 ‘비-파악적 감각표상(non-kataleptic impression)’, 즉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에 동의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단순한 억견’을 갖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한다(*Ac.* 2.67).

23) 키케로는 *Ac.*에서 스토아 학파의 현자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2가지 설명을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다. *Ac.* 2.99-104에서는 클리토마코스의 견해가 옳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Ac.* 2.7, 2.60, 2.78, 2.148 등에서는 필론과 메트로도로스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다. 필자는 필론과 메트로도로스를 따라 카르네아데스를 완화된 회의주의로 본다.

한 인식의 소유자와 동일시하였던 스토아 학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자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인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현자가 보통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델로 기능할 수는 있는 가능성까지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나의 단서는 존재한다. 그것은 현자도 올바르게 검증된 개연적인 감각표상들, 즉 역견에 근거해 행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와 달리, 역견을 가진 현자, 즉 인식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런 현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만약 현자가 어떤 것이라도 동의한다면, 그는 때때로 역견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현자는 결코 역견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르케실라오스는 대전제와 보조전제를 모두 받아들였기에 이 논변에 찬성했다. 그런데 카르네아데스는 때로 다음을 보조전제로 인정했다. ‘현자도 때로는 역견을 가진다. (Ac. 2.67)

주지하다시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에는 파악표상에 대한 동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 또한, 현자는 파악표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카르네아데스가 보기에, 만약 스토아 학파의 논리대로라면, 현자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無能力者)’로 남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스토아 학파의 현자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악표상에 대한 동의의 과정을 획득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는 자신이 파악하고자 하는 파

24) “... 회의주의자의 동의나 믿음은 독단주의자의 그것과 다르다. 독단주의자의 동의는 판단뿐만 아니라 행동도 결정한다. 하지만 카르네아데스는 판단과 행동의 문제를 분리한다. 개연적인 믿음은 확실한 것은 아니나 행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Ac. 2.103-4; Ac. 2.78, 2.59, 2.67, 2.148는 참고할 것).

악표상 이외의 비파악표상, 즉 명석판명하지 않은 다른 감각표상들까지도 꺼안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기 때문이다. 즉, 스토아 학파의 현자는 획득하고자 하는 파악표상 대신, 획득해서는 안 되는 불완전한 의견까지도 갖게 되는 오류(誤謬)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에게 현자가 불완전한 의견을 소유한다는 것은, 인식론적 실패를 자인함과 동시에, 행위가능성의 문제에 있어 윤리적 실패를 자인하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시종일관, 카르네아데스는 불완전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히 숙고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그가 현자도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가 말하는 의견이란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의견이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카르네아데스가 말하는 의견이나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는 의견 모두 ‘참된 진리’라는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보자면, 모두 불완전한 것들이지만, 유한한 의견에 수반되는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의미에 주목하는 스토아 학파와 달리, 카르네아데스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상식적·긍정적인 의미의 의견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카르네아데스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을 구분 짓게 하는 차이점이었던 것이다.

## 5. 맺음말

신-아카데미 학파의 창시자인 카르네아데스는 고대 아카데미 회의주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아르케실라오스로부터 시작된 아카데미 회의주의를 계승·발전시켰으며, “개연적인 감각표상(pithane phantasia)”을 중심으로 행위가능성의 문제를 천착하였다. 그 결

과, 아카데미 회의주의의 지평은 크게 확장되었다. 이러한 카르네아데스의 회의주의는 크게 3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카르네아데스는 진리의 기준으로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제시한다. 이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크리시포스의 독단적인 동의 개념에 내포된 인식론적인 교만을 비판한다. 나아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들로부터도 참되지 않은 표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스토아 학파의 진리 기준인 파악표상이 가진 한계점을 성공적으로 노출시킨다.

둘째, 카르네아데스는 스토아 학파의 “행위불가(apraxia)” 문제제기에 맞서, 행위가능성을 천착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시종일관 “판단유보(epochē)”의 원리를 고수하였던 아르케실라오스와 달리, 그는 개연적인 감각표상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지책(苦肉之策)에서 판단유보의 원리를 제한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온건한 회의주의자’ 또는 ‘완화된 회의주의자’로 평가된다.

셋째, 카르네아데스는 “현자(ho sophos)”도 개연적인 감각표상들에 따라 자신의 “억견(doxa)”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 그가 말하는 억견이란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억견이 아니라,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의 억견이었다. 이것이 바로 카르네아데스를 스토아 학파와 구분 짓게 하는 차이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카르네아데스는 개연적인 감각표상 개념을 통하여 회의주의자가 어떻게 동시에 유의미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철학자였다. 물론, 섹스투스를 비롯한 피론주의 회의주의자들이 그의 철학을 강하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카데미 회의주의를 완성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로 인해, 아카데미 회의주의는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태도를 확보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용민, “키케로와 헬레니즘 철학: 『아카데미 회의주의에 대하여』에 나타난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 라에르티오스, 디오게네스, 『철학자 열전』, 전양범 역, 동서문화사, 2008.
- 박규철, “회의나 독단이나?-중기 아카데미학파의 아르케실라오스의 회의주의-”, 『대동철학』 제64집, 대동철학회, 2013a.
- \_\_\_\_\_, “고대 회의주의의 변천과 재발견”, 『철학논총』 제74집, 새한철학회, 199-223, 2013b.
- 박승권, “스토아 학파의 진리의 기준-파악과 파악표상의 대립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77집, 새한철학회, 2014.
-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피론주의 개요』, 오유석 역, 지만지고전천출, 2008.
- 오유석, “회의주의자와 독사: 아르케실라오스와 카르네아데스의 입장”, 『철학』 제83집, 2005.
- \_\_\_\_\_, “스토아 학파의 진리의 기준”, 『지중해지역연구』 11권 2호, 부산의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2009.
- \_\_\_\_\_, “내재주의인가 외재주의인가- 스토아 학파와 아카데미아 회의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58호, 한국동서철학회, 2010.
- 코르티, 로렌조, “지식, 의혹, 확신: 고대의 회의주의”,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 움베르토 에코·리카르도 페드리가 편저, 윤병언 역, 아르테, 2018.
- 키케로, 『키케로의 신들의 본성에 대하여』, 나남, 2012.
- 포그트, 카차, 『고대회의주의』, 김은정·박승권·신우승 외 3인 역, 전기가오리, 2018.
- 황설중, “누가 회의주의자인가?-아카데미 학파와 피론주의의 진리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제81집, 범한철학회, 2016.
- \_\_\_\_\_, “신아카데미학파와 피론주의의 차이에 관하여”, 『철학논총』 제91집,

- 새한철학회, 2018.
- Annas, J. · Barnes, J., *Sextus Empiricus, Outlines of Sceptic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Bett, R. “Carneades’ Pithanon: A reappraisal of its Role and Status”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7, 1989.
- \_\_\_\_\_,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cient Sceptic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Cicero, *On Academic Scepticism*, trans. Charles Brittain, Hackett Publishing Company, 2006.
- \_\_\_\_\_, *Academics*. trans. H. Rackham. Loeb Classical Library, 1951.
- Cooper, J. “Arcesilaus: Socratic and Sceptic” in J Cooper, *Knowledge, Nature, and the Good, Essays on Ancient Philosoph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Couissin, P., “The Stoicism of the New Academy” in Burnyeat, M.F. ed. 1983 *The Skeptical Tra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Translation of “le stoicisme de la nouvelle Academie” *Revue d’histoire de la philosophie* 3 (1929), 1983.
- Floridi, Luciano, “The rediscovery and posthumous influenc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cient Scepticism*, R. Bett ed.,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_\_\_\_\_, *Sextus Empiricus: The Transmission and Recovery of Pyrrhon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Frede, M., “Stoic Epistemology” in Algra, K., Barnes, J., Mansfeld, J., and Schofield, M. eds.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Ioppolo, A.M., “Presentation and Assent: A Physical and Cognitive Problem in Early Stoicism” *Classical Quarterly* 40, 1990.

- \_\_\_\_\_, “Su alcune recenti interpretazioni dello scetticismo dell Acemia. Plutarch. *Adv. Col.* 26, 1121f-1122f: una testimonia su Arcesilao” *Elenchos* 21, 2000.
- Lee, Mi-Kyoung, “Antecedents in Early Greek Philosoph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cient Scepticism*, R. B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Levy, Carlos, “The sceptical Academy: decline and afterlife,”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cient Scepticism*, R. Bett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Long, A.A., & Sedley, D.N.,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volume 1 translations of the principal sources, with philosophical commenta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Machuca, Diego E. ed., *Pyrrhonism in Ancient, Modern, and Contemporary Philosophy*, New York: Springer, 2011.
- Obdrzalek, S, “Living in doubt: Carneades’ Pithanon Reconsidered”, *Oxford Studies in Ancient Philosophy* 31, 243-80, 2006.
- Popkin, Richard, *The History of Scepticism: From Savonarola to Bayl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chofield, M., “Academic Epistemology” in Algra, K., Barnes, J., Mansfeld, J., and Schofield, M. eds. 1999. *The Cambridge History of Hellenistic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Sedley, D.N., “The Motivation of Greek Skepticism” in Burnyeat, M.F. ed. 1983, *The Sceptical Tra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Sextus Empiricus, *Outlines of Pyrrhonism*, trans. R. G. Bury, Loeb Classical Library.
- \_\_\_\_\_, *Against the Logicians*, trans. R. G. Bury, Loeb Classical Library.
- \_\_\_\_\_, *Against the Physicists*, trans. R. G. Bury, Loeb Classical Library.

- Striker, G. "Sceptical Strategies" in Schofield, M., Burnyeat, M., and Barnes, J. eds. 1980. *Doubt and Dogmatism: Studies in Hellenistic Epistem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_\_\_\_\_, "Über den Unterschied zwischen den Pyrrhoneern und den Akademikern", in *Phronesis* 26, 1983.
- \_\_\_\_\_, "Academics Versus Pyrrhonists, Reconsidered"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cient Scepticism*, R. Bett (ed.),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Thorsrud, H., "Arcesilaus and Carneade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Ancient Scepticism*, R. Bett (ed.), 20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The problem of ‘the convincing impression’ and ‘the ability to act’ in the Carneades’ Scepticism**

- Focused on the critique of the notion of ‘the kataleptic impression’ and ‘the sage’ in the Stoic Epistemology -

Park, Kyu–Cheol (Kookmin Univ.)

Carneades, who completed Academic Scepticism, hold an important place in the history of ancient Academic scepticism. He did well in maintaining Academic scepticism from Arcesilaus and sought into the problem of the ability to act in terms of the convincing impression (pithane phantasia). As a result, the horizon of Academic scepticism was further expanded. This Carneades’ scepticism consists of three characteristics.

First, Carneades views the convincing impression as having criterion of truth. By emphasizing this notion, he criticizes epistemological arrogance implicated in notion of dogmatic assent of Chrysippus. Futhermore, By investigating the untrue representations derived from the real things he successfully exposed breaking point within the Stoic’s criterion of truth, that is to say kataleptic impression.

Second, in respond to the problem of apraxia(the argument of inaction) of the Stoics, Carneades examines the ability to act, and offers the convincing impression as an alternative to it. This is different from Arcesilaus’ view, which continues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suspension of judgement. Carneades restricts the principle partly in a desperate attempt to meet scope of pithane phantasia. In this sense, he

was the moderate sceptic or the mitigated sceptic.

Third, Carneades claimed that belief(doxa) makes our daily life live if it was deliberated thoroughly even though it is an incomplete belief. Thus when he says that the sage has belief according to the convincing impression, what he said about belief is not negative doxa which the Stoics thought but affirmative belief which anyone, who has common sense, can consent.

In conclusion, it was philosopher, Carneades that shows a new potentiality about how the Sceptic can live a meaningful life simultaneously through notion of the convincing impression. Although Pyrrhonists including Sextus Empiricus criticizes his philosophy severely, he is a person who accomplished scepticism. After that time, The New Academics could acquire well proportioned attitude in the problem of theory and practice.

Key words: Carneades, New Academics, Chrysippus, convincing impression, kataleptic impression, sage, belief

박규철 E-mail: ttakala@hanmail.net

투 고 일	2018년 10월 13일
심 사 일	2018년 10월 29일
계재확정	2018년 11월 11일